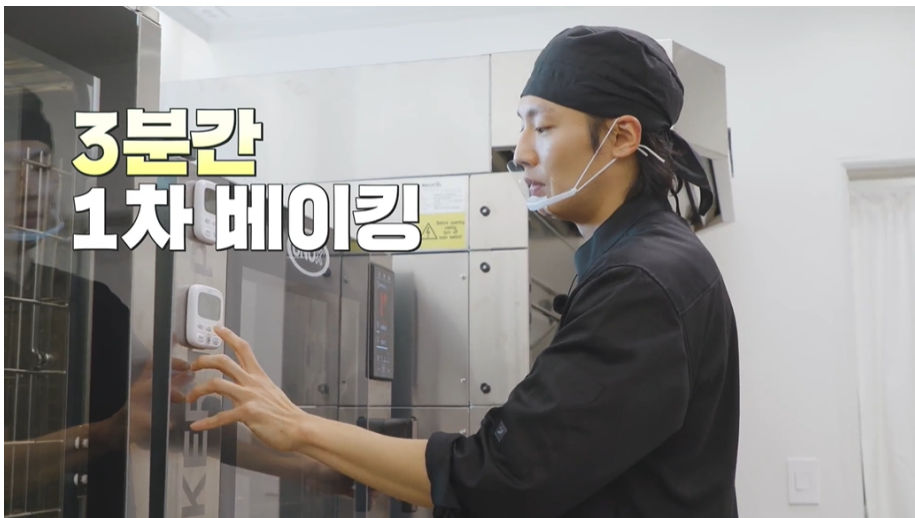


#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봉주르빵집' 주문 대폭주에 멘붕 온 김희애?! 차승원X김선호 특급 공조로 위기 탈출!

2026. 6. 8.







쿠팡플레이 예능 <봉주르빵집>이 밀려드는 포장 주문과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 속에서도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완벽한 팀워크를 선보이며 따뜻한 웃음을 안겼다.

<봉주르빵집>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문을 연 국내 최초 '시니어 디저트 카페'를 배경으로 인생의 맛을 아는 어르신들과 행복의 맛을 아는 빵집 식구들이 달콤한 위로와 온기를 나누는 힐링 베이킹 예능.

지난 5일(금) 공개된 5화에서는 오픈과 동시에 문전성시를 이룬 빵집 풍경과 함께 끈끈한 팀워크로 위기를 이겨낸 빵집 식구들의

다이내믹한 하루가 펼쳐졌다.

이날 <봉주르빵집>은 대기 손님이 생길 정도로 오픈 이래 최대 북적임을 자랑했다. 쏟아지는 포장 주문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손님들 속에서 언제나 침착하던 ‘사장님’ 김희애에게도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다. 몰아치는 주문에 서빙 실수를 할 뻔한 데 이어 계산 착오까지 발생하며 순간 ‘멘붕’에 빠진 것.

하지만 위기의 순간, 빵집 식구들의 구원 투수 공조가 빛을 발했다. 주방을 지키던 차승원은 홀로 긴급 출동해 능청스러운 입담으로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벌어줬고, 직접 주문 접수와 서빙까지 도우며 김희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김선호 역시 김희애의 실수에도 당황하지 않고 재치 있게 상황을 수습하는가 하면, 지친 사장님에게 마음을 다한 위로를 건네며 훈훈함을 자아냈다.

주방팀도 만만치 않은 위기를 맞았다. 더운 날씨 탓에 반죽이 흐물거리는 사상 초유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 하지만 ‘제빵왕’ 차승원은 신속한 판단과 특단의 조치로 위기를 해결하며 신메뉴 ‘봉주르 밤호박 바브카’를 무사히 완성해냈다. 이어 최고난도를 자랑하는 신메뉴 ‘봉주르 피칸 파리브레스트’의 물방울 크림 짜기까지 완벽하게 성공시키며 다시 한번 범접 불가능한 장인 정신을 뽐냈다.

보조 셰프 이기택의 빛나는 성장도 재미를 더했다.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단호박을 손질하는 성실함은 물론, 네모반듯한 황금빛 피낭시에를 완성하며 ‘완판 신화’에 힘을 보탰다. “너무 정신없지만 정말 재미있다”며 점점 제빵의 매력에 빠져드는 막내의 진심과 성장 과정은 시청자들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빵집 식구들의 진심은 손님들의 발걸음으로 이어졌다. 매일 출석 도장을 찍는 단골손님부터 한자리에 모인 4대 가족, 김선호를 바라보며 눈에 꿀이 떨어지는 팬 어르신, 김희애의 실물을 영접하고 환한 미소를 감추지 못한 '희바라기' 3인조 신사들까지 각양각색의 손님들이 빵집을 가득 채웠다. 초보 영업의 서투름을 지나 맛과 온기까지 가득 채운 <봉주르빵집>의 무르익은 하루는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여운을 선사했다.

동네 빵집을 넘어 다시 찾고 싶은 마을의 따뜻한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봉주르빵집>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mailto:media@coupang.com)